

양봉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요구사항

2024. 3.



(사)한국양봉협회

1

양봉산업 현황 및 꿀벌의 공익적 가치

□ 양봉산업의 현황 1(가구수 및 군수 현황)

○ 국내 양봉농가 및 꿀벌 사육군수 현황

구 분	가 구 수	군 수	비 고
‘19년	29,026	2,744,141	
‘20년	27,532	2,679,842	
‘21년	27,583	2,690,023	
‘22년	26,805	2,504,703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자료)

○ 꿀벌 종별 사육형태별 가구수 및 군수

구 분	재래종		개량종		비 고
	가구수	군수	가구수	군수	
‘19년	3,861	131,530	25,252	2,612,611	
‘20년	3,349	98,076	24,116	2,581,766	
‘21년	3,338	108,578	22,253	2,581,445	
‘22년	3,750	118,254	23,140	2,386,449	

○ 개량종 중 사육형태별 가구수 및 군수

구 분	고정양봉		이동양봉		비 고
	가구수	군수	가구수	군수	
‘19년	18,800	1,534,294	6,619	1,078,317	
‘20년	18095	1,530,668	6,421	1,051,098	
‘21년	18718	1,655,261	5,670	926,184	
‘22년	18403	1,582,034	4,905	804,415	

□ 양봉산업의 현황 2(생산량 현황)

○ 국내 양봉농가는 수요가 높은 아까시꿀 생산량에 주력(벌꿀 생산량 중 아까시 꿀 비중 : 60~70%) 하기 위한 이동양봉 형태 위주

- 이동양봉농가(전체양봉농가의 50~60%)는 개화시기인 5월 초 남부지역부터 시작하여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옮겨 가며 채밀

- 벌꿀 종류별 생산량 현황

구 분	벌꿀 생산량(단위 : 톤)				비고
	아카시아	야생화(잡화)	밤 꿀	합 계	
2017년	51,892	17,989	9,743	79,624	평 작
2018년	27,448	9,690	4,450	41,588	흉 작
2019년	57,771	19,795	7,391	84,957	평 작
2020년	2,817	2,431	5,187	10,435	흉 작
2021년	8,000	7,000	10,000	25,000	평년작 1/3수준
2022년	52,897	18,516	8,256	79,669	평 작
2023년	53,000	18,125	8,125	79,250	평 작

(출처 : (사)한국양봉협회)

□ 꿀벌산업의 공익적 가치

○ 꿀벌산업은 꿀, 화분 등의 꿀벌 산물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

-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

※ 미국에서 꿀벌의 감소로 아몬드와 블루베리의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였고 연쇄적으로 전 세계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바 있음

- 식물이 수정을 하지 못하면 작물과 목초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식량과 가축 생산이 줄어들어 결국, 인류의 식량수급에 위기가 도래

유럽에서 꿀벌은 경제적 지위가 3위

- ☞ 꿀벌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생물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한 결과
- 미국에서 꿀벌의 꽃가루받이 등 공익적 가치는 꿀벌 산물의 143배에 이르고, 주요작물의 생산에 꿀벌의 기여도는 총 145억\$
 - 캐나다에서 꿀벌의 꽃가루받이를 통한 가치는 '90년 4억 5천만달러에서 '98년에는 7억 8천만달러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도 꿀벌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 보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국내에서 꿀벌이 농작물 수분작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사과, 딸기 등 16개 과수, 채소류에서 약 6조원으로 평가
- 꿀벌의 꽃가루받이 기여도는 수박, 메론, 딸기의 경우 전체 생산액의 80%이며, 사과는 68.9%를 기록

2

문제점

□ 기후 이상 변화 등에 따른 꿀벌 폐사 발생

- 이상기후, 농약 중독, 약제내성 증가 등에 의해 꿀벌응애 등 각종 질병발생 만연 추정
 - 전국적으로 채밀기 이후 꿀벌응애의 급속 확산으로 농가에서는 응애 구제를 위해 화학적 방제와 함께 친환경적 구제방법 등으로 방제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 확산 속도가 급속히 발달됨에 따라 친환경 신종 약제 개발 등 대책방안 절실
 - 또한, 타 축종의 경우 가축 폐사 시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꿀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양봉농가들이 질병 발생시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질병 확산 및 차단에 어려움 발생

□ 밀원수 부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수입 벌꿀과의 경쟁력 약화

-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기피 및 생리적 쇠퇴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대부분 양봉농가가 밀원을 보유하지 않고 타인 소유 산림의 산림에 의존하고 있어, 산주의 거부감이 있는 수종 확보가 곤란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밀원수 및 산림 파괴면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밀원수 감소에 따른 양봉장 사이 거리는 줄어들어 양봉농가간의 민원 및 분쟁 발생

□ 양봉농가 직불금제도 시행

- 꿀벌은 타 축종과 달리 식량작물의 화분매개 작용과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클 뿐 아니라, FTA 확대에 의한 국내 양봉산업 보호 및 안정적인 양봉농가 경영을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필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보완을 통해, 화분매개로 농작물의 결실을 돕는 꿀벌 산업에 대하여 양봉(꿀벌)산업 직불제 혹은 꿀벌의 생태계 보존료를 도입하여 양봉 등록 경영체에 대하여 일정부분 소득을 보존해주므로 꿀벌의 화분매개 효과로 과수산업의 발전과 양봉농가 소득 증대 기대

□ 밀원수 직불제 도입 및 밀원수 식재 법제화 등

-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은 모두 산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인 산주의 인식 부족으로 밀원수 식재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도로변과 나들목에 인접한 산림 등에 대하여 순차적인 집단 밀원숲을 조성하므로,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 및 임업인에 대한 밀원수 직불제 도입으로 양봉인과 임업인간 상생 효과 기대
- 국, 공유림과 유휴림에 지속적인 집단 밀원숲 확대가 필요하고 경제림 별목시 기존 밀원수를 준치하고 식목시 밀원수의 의무 혼합 식재를 법제화
- 국토의 70%가 산림인 국가에서 밀원부족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조림사업 시 밀원수를 일정비율 이상 식재 의무화 필요

□ 벌꿀 흉작 발생시, 자연재해 인정을 통한 각종 지원 요구

○ 기후 상태에 따른 아까시 개화 정도에 따라 양봉농가 생계, 나아가 양봉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만큼, 기후 이상변화로 인한 벌꿀 흉작시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양봉농가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과수 및 농작물 피해와 동일 취급, 지원 요망

- 양봉농가 생계비 및 사료자금 보조지원
- 경영안정화자금 및 학자금 저리융자 지원
- 기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붙임 월동봉군 소멸피해 현황

□ 2022년 월동 후 피해현황

(출처: (사)한국양봉협회)

지회	조사농가 수(명)	월동 전 봉군 수(군)	월동 후 봉군 수(군)	피해봉군 수(군)	피해율
경기	1,519	150,031	67,125	82,906	55.3%
강원	670	104,725	46,707	58,018	55.4%
충북	1,425	221,757	95,174	16,583	57.1%
충남	654	79,689	39,208	40,481	50.8%
전북	2,708	270,399	94,63	175,760	65.0%
전남	242	64,326	31,238	33,088	51.4%
경북	1,136	138,406	40,861	97,545	70.5%
경남	3,704	389,016	188,108	200,908	51.6%
제주	157	33,965	19,010	14,955	44.0%
서울	23	4,173	1,578	2,595	62.2%
부산	97	12,747	5,250	7,497	58.8%
대구	92	14,061	6,596	7,465	53.1%
인천	62	10,83	4,508	6,324	58.4%
광주	80	12,172	5,471	6,701	55.1%
대전	101	17,589	5,835	11,754	66.8%
울산	125	15,634	8,492	7,142	45.7%
합계	12,795	1,539,522	659,800	879,722	57.1%

□ 2023년 월동 후 피해현황

(출처: (사)한국양봉협회)

지회	조사농가 수(명)	월동 전 봉군 수(군)	월동 후 봉군 수(군)	피해봉군 수(군)	피해율
경기	2,300	249,150	110,370	138,780	55.7%
강원	382	57,889	29,112	28,777	49.7%
충북	2,573	203,134	82,282	120,852	59.5%
충남	2,500	255,000	117,300	137,700	54.0%
전북	242	64,326	31,238	33,088	51.4%
전남	1,763	267,983	107,604	160,379	59.8%
경북	-				
경남	2,638	338,917	84,730	254,187	75.0%
제주	-				
서울	23	4,173	1,578	2,595	62.2%
부산	113	11,544	3,930	7,614	66.0%
대구	268	35,717	10,399	25,318	70.9%
인천	92	13,046	2,910	10,136	77.7%
광주	86	14,309	5,136	9,173	64.1%
대전	210	22,082	6,641	15,441	69.9%
울산	-				
합계	13,190	1,537,270	593,230	944,040	61.4%

※ 2023년 경북, 제주, 울산은 자체사정으로 통계조사를 하지 못함.

□ 2024년 월동 후 피해현황

(출처: (사)한국양봉협회)

지회	조사농가 수(명)	월동 전 봉군 수(군)	월동 후 봉군 수(군)	피해봉군 수(군)	피해율
경기	2,316	172,132	78,758	93,374	54.2%
강원					
충북					
충남	1,148	181,335	76,903	104,432	57.6%
전북	952	155,748	81,557	74,191	47.6%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9	1,180	540	640	54.2%
부산					
대구	352	49,768	23,338	26,430	53.1%
인천	93	7,976	4,188	3,788	47.5%
광주	87	11,582	5,404	6,178	53.3%
대전	152	23,214	10,860	12,354	53.2%
울산					
합계	5,109	602,935	281,548	321,387	53.3%

※ 2024년 3월 18일까지 취합 기준 및 현재 취합 중